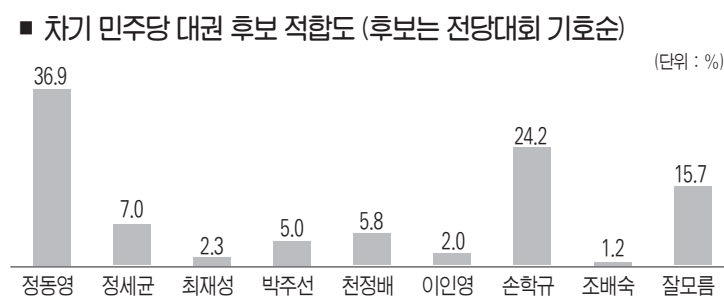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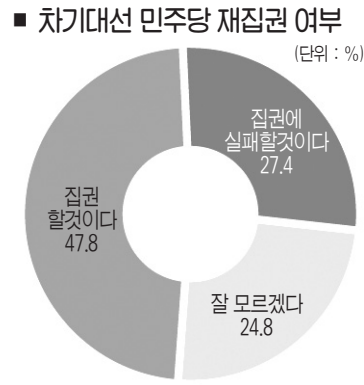


종합·해설

꾸준한 '호남구애' 손학규 당 대표 선두로

■ 민주당 10·3 전대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
손, 광주·전남서 고른 지지 타후보 압도
천정배 20~30대, 박주선 50대가 선호
대권 후보 정동영·손학규 양강구도 형성



광주·전남 지역민은 10·3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나선 8명의 후보 중 손학규 전 대표를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았다.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손 전 대표는 8명의 후보 중 2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 ▲정동영(26.4%) ▲정세균(8.9%) ▲천정배(8.3%) ▲박주선(7.7%) ▲이인영(2.3%) ▲최재성(1.5%) ▲조배숙(1.3%) 순이었다. 이른바 '빅3' 중 손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이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호남에 지역기반이 전혀 없는 손 전 대표의 '약진'은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광주·전남에서 보여준 꾸준한 호남에 대한 애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 전 대표는 전남(26.9%)보다 광주(28.2%)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고, 두 지역 모두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손 전 대표는 여성(21.1%)에 비해 남성(31.3%)의 지지가 높았지만 정동영 고문은 남성(24.6%)보다 여성(29.4%)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세균 전 대표는 남성(8.9%)과 여성(8.8%)의 지지 비율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손 전 대표가 전 연령층에서 20~30대의 고른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다른 후보에 비해 20~30대 젊은층과 50대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정 고문은 40대(3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 전 대표는 60대(12.8%)에서만 10%대의 지지를 얻었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정동영 고문이 36.9%로, 24.2%를 얻은 손학규 전 대표를 제쳤다. 정 고문은 여성(40.9%)의 압도적 지지 속에 전 연령층에서 30~40%대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손 전 대표는 남성(29.1%)의 높은 지지 속에 30~50대에서 20~30%대의 지지를 보였다. 또한, 당 대표 적합도에서 손 전 대표를 선호했던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대선 후보로는 정 고문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다음달 3일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직접 투표 70%와 당원 여론조사 30%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광주·전남 거주 성인남녀 1523명 전화 설문

여론조사 어떻게 했다
이런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8명의 당권 후보들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처에 의뢰해 지난 17일 하루 동안 실시했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할당 표본 추출방식을 통한 ARS 전화설문조사로 이뤄졌으며, 후보 순서는 로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유효 표본 수는 1523명이었다. 조사내용은 성별·연령별 등 기본사항을 비롯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등 총 5개 문항으로 했다.

지역별 응답자는 광주 41.6%, 전남 58.4%였으며, 성별 응답자는 남성 62.1%, 여성 37.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9.2% ▲30대 19.8% ▲40대 21.8% ▲50대 15.1% ▲60대 이상 24.0%였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10·27 재보선 현장

조용진 "풍요롭고 건강한 서구 만들겠다"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9일 "풍요로운 건강한 서구를 만들겠다"며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기 위해 감히 서구민 앞에 섰다"며 "정치는 정치가가, 행정은 행정인이 맡아야 한다는 신념

으로, 33년간 토종공무원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구청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기초를 튼튼히 해 기본에 충실한 서구를 만들고 365 서비스코너 등 전민 구청장이 잘한 일은 그대로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실장은 "주민들이 서구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며 "건강하고 질서있는 서구, 국민의 삶이 편리한 서구, 국민이 풍요로운 서구를 만드는데 헌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민주당 공심위 개혁공천 주장



송갑석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9일 민주당 공천심사위의 활동과 관련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고, 야 4당 후보들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인지도와 개혁성을 가진 젊고 개혁적인 40대 후보군"이라며, "민주

당 또한 젊고 개혁적인 후보를 공천해, 서구가 개혁공천을 통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를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서구는 20~40대 유권자가 70%이며, 개혁성과 참신성 있는 후보에 대한 갈증이 큰 지역"이라며 민주당 공심위의 개혁공천을 적극 주장했다.



예배 참석하는 김황식 후보자
새 총리로 내정된 김황식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9~30일 이틀간 열리게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대 과열·혼탁 양상

'손학규 1위' 문자메시지 발신처 확인 수사 의뢰

'자기 당원 숫자 늘리기' 당비 납부 집중 독려도

10·3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전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경선전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와 제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당 선관위는 19일 여러 후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대의원들이 받은 한 문자메시지의 발신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이 메시지는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빅3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정동영 상임고문, 정세균 전 대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정 전 대표와 정 고문 측은 "당규를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발끈하면서 "이 문자메시지에서 1위로 나온 손 전 대표 측이 보낸 문자메

시지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손 전 대표 측은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이 대의원을 상대로 "정 전 대표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규상 후보자 명의로만 5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도 정 전 대표 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 또 정 전 대표 진영의 좌장격인 김진표 의원이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전대 판세를 설명한 것은 그냥 두고, 이를 반박한 차영 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한데 대해서만 당 선관위가 경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손 전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정 전 대표, 손 전 대표 측은 정 고문 측이 당원 여론조사(전체 접수율의 30% 차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지지 당원들의 당비 납부를

집중 독려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론조사 대상인 '당비 당원' 중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와 각 후보 진영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과 금품이 살포될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빅3'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이 남은 전당대회 국면의 판세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 본격적인 '차레상 표심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손 전 대표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광주·전남 구석구석을 돌며 호남권 우위 다지기에 나선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서울 자택에 머물며 단체장들과 지방의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선거운동에 주력키로 했다. 정 고문은 연휴기간 3일간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에 머물며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면서 틈나 대로 당원과의 대화도 갖기로 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 분들 가슴마다 정겨운 추석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 오십시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청정한 공기
광주 도심에 한눈에 내려다 보는
천혜의 조건, 고객우선 서비스 정신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문의 062-525-2111~5 (구. 광주시청 맞은편)
우유 다지기에 나산다.